

월요광장

을미년(乙未年)에 바라는 작은 소망



이 승 권
조선대 아시아문화교류사업단장

희망찬 을미년의 새해가 밝았다. 다사 다난하다 못해 치열하기 까지 했던 갑오년이 지나고 온순하고 원만함을 상징하는 청양(靑羊)의 해가 떠올랐다. 갑오년의 혼돈이 해가 바뀌어도 진정될 기미는 없지만 청양의 좋은 의미를 되새기며 한 가닥 희망을 가져본다.

게다가 쌍춘년(雙春年)이라고 하니, 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하는 젊은이들에게는 행운의 해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많은 변화가 예견되는 광주에서 을미년을 살아갈 필자의 기대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2015년에 광주시민의 일상에 가장 큰 변화를 몰고 올 일은 서울과 광주를 1시간대에 주파하는 KTX의 개통이다. KTX의 개통은 광주시민의 시공간에 대한 의식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산업혁명을 견인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도시문명의 고도화시켰듯이 KTX의 개통은 광주시민의 일상은 물론 문화도시 광주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방어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KTX는 광주전남의 지방화를 촉진하는데 부분적인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KTX의 활용에 대한 선진사례의 연구와 시민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으로, 광주시민의 일상에 변화를 몰고 올 일은 10년 이상을 끌어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은 도시공간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문화전당의 정원은 거대한 광장인 동시에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이 단순한 전시나 디지털 아카이브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전당의 정원은 교류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전당이 광주의 발전을 견인할 핵심 동력인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기대만큼 낙관적이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아시아문화전당과 7대 문화권 사업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안타깝지만 더이

상의 퇴로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민의 일상에 변화를 몰고 올 일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사업이다. 2014년의 동아시아문화도시 지정에 이어 2015년에 지정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는 문화도시로서의 광주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한 쾌거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하는 유네스코의 인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광주는 미디어 아트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모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책무도 동시에 부여 받은 것이다. 따라서 창의도시 지정의 행정절차가 끝나면 지속가능한 창의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 역할이 요구될 것이다. 창의도시는 창의적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는 2015년은 분명히 광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필자는 광주가 추구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동아시아문화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등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대 도시들이 궁극적으로는 문화도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도시의 성격을 규정하는 도시의 명칭은 크게 중요하지 않

다. 중요한 것은 문화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광주만의 차별화된 문화도시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다.

광주의 독창성이 인권을 중시하는 시민의 의식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문화도시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전당의 완공을 계기로 문화도시 만들기 사업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업을 이어주는 실행 전략이다. 그런 면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가 동아시아의 문화도시는 물론이고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선 도시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관계망에 대한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거버넌스와 다른 형태의 문화예술생태지도의 구축은 전당의 하드웨어와 시민사회의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주고 문화도시 광주의 어머니티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이 시작되는 2015년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열개를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문화예술생태지도를 활용한 문화도시 전략이 세워지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U대회 개막 코앞인데 불협화음 빚어서야

개막 6개월을 앞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의 준비과정이 잦은 불협화음으로 뒤숭숭하다니 걱정이 앞선다. U대회는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스포츠 축제이자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성공 개최가 지상과제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U대회 육상경기장과 훈련장 트랙공사 입찰에서 합평지역 업체가 24억여 원에 낙찰을 받은 데 대해 탈락한 타지역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다량 구매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단가는 높지만 자사의 전체 가격이 저렴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2개 제품 중 가격을 낮게 제시한 지역업체가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단가평가에서 탈락한 타지역 업체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더불어 합평 업체의 경우 천연고무와 합성고무를 섞은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안심맞춤인 셈이다.

문제는 개막을 코앞에 두고 이러저

러한 잡음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번 트랙공사과 관련 외국업체와 U대회 조직위가 융복 협찬을 대가로 이면협상을 벌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또 조차위 일부 공무원들은 시 분청 복구를 위해 치열한 로비전까지 벌이고 있다니 불쌍 사나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U대회가 끝나면 조직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미리 본청으로 들어가려는 공무원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지금은 성공 개최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는 열사봉공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때다.

U대회가 끝나면 시기에 소위 '마르자리나' 기웃거리려는 공무원들을 염려 다스리고 조직의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동시에 묵묵히 맡고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대회 후 인사 혜택 등 인센티브도 내놓아야 한다. 마르자리나 소용과 운영 미숙으로 오점을 남긴 인천 아시안 게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광산구발 광주시 고위직 인사 파행이라니

2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광주시의 4급 이상 고위직 전보인사가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이면서 인사를 비롯한 사전 전반에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시가 광산구와 고위직 교류인사를 놓고 이견이 생겨 예초 지난달 30일 단행하기로 했으나 협의에 진척이 없자 다시 연기한 것이다.

광주시는 이날 "광산구가 20여 년간 유지된 자치구 부구청장의 시 추천 대신 특정 자치구 4급 공무원을 시로 전임시켜 주도록 추가 요청한 것은 인사 교류 관행에 어긋나는 만큼 시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자치구 인사권 한에 대한 정당한 행사라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광산구가 광주시와 사전 협의 없이 서기관 직급을 1명 더 늘려 승진 의결한 것은 정당한 처사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인사 교류 관행과 제도를 바꾸려면 충분한 논의와 설득을 통해 이뤄내야지 일방적으로 승진

시켜 광주시가 해당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억지나 다를 바 없다.

만일 이를 광주시가 수용할 경우 타 자치구도 같은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 교류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광산구가 부구청장을 광주시로부터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주고 받기 식으로 하자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20여 년간 유지돼 왔고, 타시·도에서도 해온 인사 교류를 이제 와서 빌미로 삼는다는 게 설득력이 있는 일인가.

따라서 광산구는 공식성과 협의의 통해 조정 내지는 재고를 해야 한다. 인사가 장기간 지연되면 승진·이동의 인사 대상자는 물론이고, 업무 차질에 따라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광산구는 순기능 역할을 한 시와 자치구 간의 인사 교류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자치구 공무원들이 먼저 입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더 이상 억지나 무리수는 안 된다.

법조칼럼

귀화 외국인의 개명 신청



장 정 희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최근 국제결혼가정, 특히 한국인 남성과 중국, 동남아 여성의 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이주 여성들이 하루라도 빨리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또한 한국인과 혼인하여 한국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이주여성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6조 제2

항 제1호).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타고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피부색과 생김새로 인한 사회적 편견이 적지 않고, 언어의 불통 역시 단시간 내에 극복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이주 여성들은 언어와 생김새 외에도, 한국사람과는 전혀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이질감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외국에서도 이름은 기본적으로 개인을 나타내는 퍼스트 네임과 가문의 이름인 패밀리 네임으로 이루어지지만, 문화적 차이에 따라 퍼스트 네임과 패밀리 네임의 순서가 우리나라와 다르다. 예를 들어, 성과 이름을 포함하여 3자로 구성된 우리의 이름과는 글자 수가 많은 것이 보통이다. 특히 동남아 여성들의 이름은 성과 이름의 구별이 모호하고, 부르기에 난해한 발음들이 많아서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정법원에서는 이주 여성들의 어려움을 일부라도 해소하여 주기 위해서 성과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권장

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흥지원의 관할구역인 장흥군과 강진군의 경우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높고, 동남아지역에서 한국인으로 이주하여 온 여성들도 많은 편이다.

장흥지원에서는 관내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주 여성들에 대한 성분창설과 개명절차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수년째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상당수의 이주 여성들이 한국식으로 성과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 이미 대부분의 이주 여성들이 개명허가를 받아서인지 최근에는 신청 건수가 다소 감소하긴 하였지만, 아직도 매년 수십 건의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장흥지원에 개명신청을 한 이주 여성들의 이름을 보면, 레베카시탈리우스토레스, 퀴오오 메르리나에이, 라티감지, 세브지드완칙 어용에르네펀 등 한국식 이름과는 전혀 다르고, 부르기도 어려운 이름이 대부분이었다.

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한자로 된 성(姓)과 본관을 새로 만들게 되는데, 성은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씨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

고, 본관은 주로 거주지역을 본관으로 정하게 된다. 다만, 전통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성과 본관(가령 김해 김씨, 전주 이씨, 장흥지역의 경우는 장흥 위씨 등)은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하는 게 좋다.

이름의 경우에는 한국식 이름과 동일하게 한자가 2자로 작명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순우리말로 작명을 할 수도 있고, 글자수도 5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성과 이름을 변경하는 신청을 할 때 있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의 지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므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울 때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들이 부르기 어려운 이름 때문에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주여성들이 있다면 한국식 이름을 바꿔볼 것을 권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 고

행복과 건강을 주는 검도



이 제 방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겸임교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빨리 간다고 말한다. 노인들은 새로운 경험이 적기 때문이다. 지난 세월 속에서 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의 어색함, 첫 사랑을 할 때의 설렘, 입사(入社)첫날의 긴장감 등의 다양했던 첫 경험은 너무나 강렬하여 기억과 저장 파장이 길다. 그때는 사소한 변화도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첫 체험보다 익숙함이 많아진다. 이 때문에 하루는 길고, 1년은 짧다. 추억의 이벤트가 줄면서 세월이 금세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낯선 곳에 여행 갔을 때 처음에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다가 후반은 빨리 지나가는 것과 같다. 나이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20세의 1년은 지나온 삶의 5%이지만 50세의 1년은 2%가 된다는 얘기도.

지난 시절, 상종가를 치던 나의 인생은 가정과 직장을 오가면서 먹고 사는데 급급했던 것 같다. 하고 싶었던 운동이나 취미생활도 미루고 미루왔는데 이젠 어색함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고, 사회 환경이 거부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그렇다고 그냥 남기기엔 남아있는 내 삶이 아깝다. 삶을 좀 알 만한 나이가 되었으니 세월을 천천히 가게 할 수는 없을까? 기다림이 있으면 세월은 더디기 마련이다. 빛고를 어른들은 물론 필자 자신도 평소 마음에 담고 있었던 인생무사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빛고를 노인 건강타운에서 지난해 하반기 검도강좌를 개설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빛고올노인건강타운을 처음 찾았을 때 수많은 어른들께서 거동이 불편한데도 표정은 밝고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아 나눠 마시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가슴이 뭉클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 필자는 40여년간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검도 선수와 지도자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70세가 넘는 어르신 몇 분은 상담 과정에서 “젊어서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운동이 검도다. 늙어도 검도할 수 있겠느냐?”라며 상당히 불안스런 표정을 보였다. “우리 인체는 잘못된 자세 때문에 허리, 어깨 등에 통증이 오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검도를 열심히 수련하면 그러한 질환은 예방되고, 특히 치매를 예방하는데 가장 적합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인간 유전자는 3만6000개인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하는 게 있고, 365개 관절은 서서히 굳어져 가면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다. 어깨와 허리 등이 온통 굳어있던 몸이라 550g 무게의 죽도를 들고 20~30분간 위아래 후리기를 하고 나면 처음 며칠간 몸살을 앓았던 기억이 난다. 시작 후 3개월 때 5급 심사를 하는데 설렘과 긴장감이 많았다. 그후 2~3개월마다 승급 심사를 받으면서 1년 6개월이 지나갔다. 역시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

느껴졌다.

이번에 내 생(生)에서 처음으로 검도 초단(初段) 심사를 받는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생활의 보폭은 좁아진다. 하지만 잔결승으로 살면서 검도와 함께 라면 세월이 천천히 따라 오지 않을까? 1년 후에는 2단 심사를 받고 3~4년 후에는 3단을 받으면서 내 나이 더 먹기 전에 4단을 목표로 하자.

건강(健康)은 내가 관리해야지, 어느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 생명은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노후 준비는 늦고 있어서는 안 된다. 행복한 노후 신의지가 수반되는 것은 20점(100점기준) 멕시코(57점), 미국(37점), 대만(33점)이다. 노후에 대해 느껴지는 정서도 멕시코와 대만은 ‘희망’ ‘기대감’ 등 긍정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우울’ ‘두려움’ ‘비관적’ 등 부정적 감정이 두드러진다는 통계가 있다.

빛고를 검도반 어르신들은 ‘100세 시대’가 비록 오래 사는 위험에 노출된 사회라 하더라도 검도를 통해 위험 불감증을 떨쳐 버리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 이라는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2015년 새해, 연하장보다 SNS를 이용한 인사가 유행하듯 많은 정도로 세태가 변했다. 그것도 스마트폰 이전에는 단순한 문자인사였으나 이제는 화려한 그림이나 동영상 인사로 바뀌었다.

구급 31일 오후부터 밤새 쏟아지는 눈발이 부담스러워 새해 첫날 햇빛을 내날까다 포기했다. 그런데 부지런한 간접직들은 여수 항일압과 멀리 올 산 간접직에서 가슴 벅찬 새해인사를 보내왔다.

많은 이들이 새벽 맨주위 속에서 수평 선이나 산 너머로 떠오르는 새해 첫해를 바라보며 두 손 모아 가족의 건강과 성공, 대박 등 소망을 빌며 새로운 다짐을 했으리라...

새해를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하는 ‘새해 다짐 10가지’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이는 교황이 직접 내세운 새해 다짐은 아니다. 지난해에 필리핀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교황의 평소 강론 내용 가운데 새해 다짐으로 삼을 만한 10가지를 편집했다고 알려졌다.

내용을 소개하자면, ①합당하지 마십시오 ②음식을 남기지 마십시오 ③

④겸소하게 사십시오 ⑤가난한 이들을 가까이하십시오 ⑥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⑦생각이 다른 사람과 벗이 되십시오 ⑧맹세하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⑨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⑩기쁘게 사십시오이다.

또 원출처는 알 수 없지만 새해에 지인이 카톡으로 전달해준 ‘20가지 좋은 말’이란 제목의 동영상도 엿보듯하다. 그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산 간접직에서 가슴 벅찬 새해인사를 보내왔다.”

럼 활짝 웃으세요’, ‘자신의 그릇을 키우세요’, ‘집안정소만 하지 말고 내 마음도 청소하세요’,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잠잘 때 좋은 기억만 떠올리세요’ 등은 마음속에 답을 한 했다.

올해는 ‘청양(靑羊)의 해’이다. 새해에는 양의 성질대로 매사가 순조롭고, 상대를 배려하고 용화하는 ‘궁정의 에너지’가 사회 곳곳에 넘쳤으면 싶다. 이제 새로운 각오로 새해 첫발을 내딛자. “저마다 지닌/ 상처깊은 곳에/ 맑은 빛이 숨어있다/ 첫 마음을 잃지 말자/ 그리고 성공하자/ 천축하게 아름다운 우리/ 첫 마음으로.”(박노해 시 ‘첫 마음’)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9500) (F A X 222-9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프 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